

제 111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11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蘚] ① 梳 ② 遷 ③ 簽 ④ 僂
2. [鞋] ① 嵇 ② 硅 ③ 咳 ④ 窪
3. [嶼] ① 權 ② 舩 ③ 鋤 ④ 祛
4. [浙] ① 滂 ② 癩 ③ 倜 ④ 憶
5. [攪] ① 恪 ② 覲 ③ 蕎 ④ 撓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几] ① 潰 ② 壞 ③ 櫃 ④ 跪
7. [勅] ① 罄 ② 頰 ③ 炯 ④ 綱
8. [勾] ① 珣 ② 履 ③ 瞿 ④ 璆
9. [很] ① 佯 ② 炘 ③ 忻 ④ 狠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昵] ① 押 ② 狎 ③ 捺 ④ 掩
11. [淚] ① 乖 ② 刺 ③ 舛 ④ 涕
12. [籬] ① 藩 ② 稠 ③ 藻 ④ 葩
13. [渚] ① 洶 ② 淄 ③ 汀 ④ 滌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摹 ② 蔑 ③ 赫 ④ 茱
15. ① 舅 ② 輿 ③ 興 ④ 盥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燔銀 : 심은 ② 峇樓 : 잠루
③ 郁李 : 옥리 ④ 焙爐 : 배로
17. ① 瓦葺 : 와즙 ② 甘藷 : 감저
③ 袂袴 : 험고 ④ 鑊烹 : 확팽
18. ① 痰喘 : 담천 ② 泮蛙 : 반와
③ 孱子 : 잔혈 ④ 籠絆 : 용반
19. ① 簇子 : 족자 ② 筌蹄 : 전제
③ 毓精 : 유정 ④ 胸臆 : 흉억
20. ① 渥丹 : 악단 ② 別墅 : 별서
③ 畫楮 : 화첩 ④ 娣姒 : 제사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 국보이다.
① 峩勒寺址石塔 ② 彌勒寺址石塔
③ 彌勒寺祇石塔 ④ 峩勒寺祇石塔
 22. 그들은 학업보다는 [질탕]스러운 유흥에 빠졌다.
① 跌宕 ② 迭盪 ③ 跌盪 ④ 迭宕
 23. [어신필]은 임금의 친필을 가리킨다.
① 御蜃筆 ② 御宸畢 ③ 御宸筆 ④ 御蜃畢
 24.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어서 [빈축]을 받는다.
① 濱蹙 ② 嘖蹙 ③ 濱蹴 ④ 嘖蹴
 25. 문반과 무반의 대립은 끝내 나라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갔다.
① 播彈 ② 擺憚 ③ 爬灘 ④ 破綻
 26.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은 후 [주랍]으로 봉하고 건네주었다.
① 鑄蠟 ② 朱臘 ③ 鑄臘 ④ 朱蠟
 27. 자주독립의 [기치] 아래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① 旗輜 ② 鎡幟 ③ 鎡輜 ④ 旗幟
-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선생님은 기력이 약해지시어 []하게 말쑤를 이어 가셨지만 청중들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① 咆哮 ② 訥澁 ③ 滑稽 ④ 餉穀
 29. 형국장에서는 형조 판서 등이 윤 대감을 끌어 앉힌 채 []하였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다.
① 謳歌 ② 畸形 ③ 推鞠 ④ 孩提
 30. 어머니는 다음 주에 심장 []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① 瓣膜 ② 翠嵐 ③ 褐斑 ④ 涅槃
 31. 그는 출세욕이 강하고 마음이 []하여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① 奸慝 ② 執着 ③ 白朮 ④ 嘶號
 32. 이 절은 깊은 산속에 있어 []에 잠기거나 참선하기에 좋다.
① 鉢盂 ② 踏襲 ③ 冥想 ④ 齟齬
 33. 승마를 많이 할 경우 대퇴부에 []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① 鷄肋 ② 捻挫 ③ 孔竅 ④ 顆粒

34. 사람들은 자연과 융화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했다.
 ① 抹殺 ② 喇叭 ③ 攄得 ④ 朦朧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부끄럽거나 창피하여 얼굴색이 붉어짐.
 ① 房壁 ② 習癖 ③ 禪衣 ④ 赧顏
36.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① 盡悴 ② 農圃 ③ 輓章 ④ 俾倪
37.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① 逗留 ② 媒近 ③ 慙疹 ④ 塼塔
38.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
 ① 膠漆 ② 蠹臣 ③ 猶豫 ④ 喧譁
39.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거나 일이 되어 감.
 ① 瞻賑 ② 荏苒 ③ 欄楯 ④ 戒飭
40.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① 幢竿 ② 佈明 ③ 緬禮 ④ 聳上
41.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외국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일.
 ① 買辦 ② 筮竹 ③ 涸鮒 ④ 廨舍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鵠入鴉群]
 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② 쉽게 평정함.
 ③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
 ④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43. [尾大難掉]
 ①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름.
 ② 일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처리하기가 어려움.
 ③ 어떤 일의 맨 마지막.
 ④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
44. [不食自逋]
 ①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②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옳혀 곤란하게 됨.
 ③ 사사로이 떼어먹지 않았는데도 공금 따위가 저절로 축남.
 ④ 제 마음으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움을 만듦.

45. [矮者看戲]
 ①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② 나라의 성덕과 광휘를 봄.
 ③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
 ④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奉使入金> - 陳華
 西華已蕭①索
 北塞尙昏夢
 坐待文明(㉠)
 天東日欲紅

(나) <言箴> - 程頤
 人心之動 因(㉠)以宣
 發禁躁妄 內斯靜專
 矧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則誕 傷(㉢)則支
 己肆(㉣)忤 出悖(㉤)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4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과 같은 뜻인 것은?
 ① 索引 ② 索道 ③ 索出 ④ 索寞
47. 문맥상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期 ② 旦 ③ 時 ④ 國
48. 문맥상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言 ② 書 ③ 思 ④ 志
49. 문맥상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 平, ㉣: 煩 ② ㉢: 平, ㉣: 亂
 ③ ㉢: 易, ㉣: 煩 ④ ㉢: 易, ㉣: 亂
50. 문맥상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 彼, ㉥: 來 ② ㉤: 物, ㉥: 來
 ③ ㉤: 物, ㉥: 反 ④ ㉤: 彼, ㉥: 反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拯 ()
- 주2. 穢 ()
- 주3. 砒 ()
- 주4. 霏 ()
- 주5. 抃 ()
- 주6. 囂 ()
- 주7. 醞 ()
- 주8. 閻 ()
- 주9. 韜 ()
- 주10. 黯 ()
- 주11. 棚 ()
- 주12. 鍋 ()
- 주13. 狺 ()
- 주14. 睥 ()
- 주15. 盼 ()
- 주16. 鐸 ()
- 주17. 杭 ()
- 주18. 鑿 ()
- 주19. 謐 ()
- 주20. 蹲 ()
- 주21. 剿 ()
- 주22. 詹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樊 ()
- 주24. 報 ()
- 주25. 銜 ()
- 주26. 冕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눈동자 정 ()
- 주28. 볏을 오 ()
- 주29. 그칠 집 ()
- 주30. 걱정없을 괄 ()
- 주31. 권할 용 ()

- 주32. 털뽀 자 ()
- 주33. 목뿔 액 ()
- 주34. 도포 오 ()
- 주35. 숨을 찬 ()
- 주36. 날카로울 염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猯 饌 椒 頹 諱 斃 繭 綃
------	-----------------

- 주37. 飯○ 歲○ 珍羞盛○ ()
- 주38. ○層 生○ ○蠶 ()
- 주39. ○座 狻○ ○下 ()
- 주40. 敗○ ○落 衰○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逡巡 ()
- 주42. 茅茨 ()
- 주43. 薄曇 ()
- 주44. 纏繞 ()
- 주45. 沙礫 ()
- 주46. 檇蒲 ()
- 주47. 含漱 ()
- 주48. 鈹鏤 ()
- 주49. 嫩芽 ()
- 주50. 颯辣 ()
- 주51. 芟荒 ()
- 주52. 沈漬 ()
- 주53. 癘疫 ()
- 주54. 嫋娜 ()
- 주55. 紇升骨城 ()
- 주56. 廓落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짐들이하는 날 아내는 [비장]의 요리 솜씨를 발휘하였다. ()
- 주58. 그는 [비장]한 각오를 한 듯 단연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
- 주59. 그 사람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주60. 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설치하여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이 중궁으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무고]의 옥이 일어났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 주61. 그는 십 년 안에 世界 頂上에 서겠다고 氣染을 吐했다. (→)
- 주62. 그들은 모든 것을 逮念한 듯 더 이상 反抗하지 않았다. (→)
- 주63. 자동차 경주를 할 때 運轉者는 엔진열과 複射熱까지 견디기 위해 방열복을 着用해야 한다. (→)
- 주64. 煙炭이 家庭의 주된 燃料였던 때에 대문 앞에는 늘 연탄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
- 주65. 적의 情勢를 斂探하다가 警戒가 疏忽해진 틈을 타서 적을 사방에서 일제히 攻擊해 들어갔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66. [불수강]: 니켈, 크롬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쉽게 녹슬지 않는 강철. ()
- 주67. [반연]: 무엇에 이르기 위한 연줄로 삼음. ()
- 주68. [전분]: 감자, 고구마, 물에 불린 녹두 따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 ()
- 주69. [철퇴]: 쇠로 만든 몽둥이. ()
- 주70. [위축]: 고슴도치가 적을 만나면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두려워서 몸을 움츠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71. [영약무도]: 모질고 사납기가 이를 데 없음. ()
- 주72. [주비]: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함. ()
- 주73. [근각]: 신중하고 성실함. ()
- 주74. [강미]: 쌀의 속겨로 쏜 죽. 겨죽. ()
- 주75. [건체]: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지체하는 일.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76. 남강 [고수부지]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렸다. ()
- 주77. 우리 군은 적군을 [협착]한 골짜기로 유인하여 섬멸시켰다. ()
- 주78. 그는 피의자들과 자주 접촉한 행적으로 인하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
- 주79. 적군의 미사일 공격은 아군의 미사일에 의해 대부분 [요격]되었다. ()
- 주80. 분쇄기에 간 원두 가루를 [여과지]에 넣고 뜨거운 물로 걸러 내어 마셨다. ()
- 주81.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청려장]을 증정한다. ()
- 주82.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생각보다 자리가 길어졌다. ()
- 주83. 이것은 허위로 [날조]된 모략이다. ()
- 주84.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풍조를 빨리 없애야 한다. ()
- 주85. 콧콧하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푸근하다. ()
- 주86. 그는 신청서에 도장 대신 [무인]을 찍어 제출했다. ()
- 주87. 이 소설에는 [패륜]을 일삼았던 왕의 파멸이 그려져 있다. ()
- 주88. 이 식품은 [단백질]의 영양분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
- 주89. 청렴하고 검소한 선비는 [온포]를 입고도 만족하였다. ()
- 주90. 군은 이번 작전에서 [노획]한 무기 및 장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犀] 박속같이 희고 고르게 박힌 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2. [一○十寒]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끊김을 이르는 말. ()
- 주93. [○視跛履]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자초함을 이르는 말. ()
- 주94. [尸位素○]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祿을 받아먹음. ()
- 주95. [光風○月]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 ()
- 주96. [傷寒動○] 찬 기운으로 인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고 열이 나는 증상. ()
- 주97. [奇○秀峯] 기이하고 경치가 빼어난 산봉우리. ()
- 주98. [酒果脯○] 술·과일·육포·식혜라는 뜻으로, 간략한 제물을 이르는 말. ()
- 주99. [佩○捉風]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헛되이 하려 함. ()
- 주100.[○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보통 건강으로 나같이 몇십 년을 하루같이 술을 마셨더라면 벌써 [冢中枯骨]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
- 주102. 대적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해후한 처지지만 그들은 [玉石混淆]의 진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었다. ()
- 주103.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온 그는 직장 동료들과 [桑麻之交]를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
- 주104.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결승전에 오른 것을 [盲龜浮木]에 비유할 수 있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흰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듯이] 인생은 덧없이 짧으니 일촌광음도 아껴야 한다. ()
- 주106. 남을 그리는 마음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
- 주107. 외할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애달프게 통곡했다. ()
- 주108.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는 안 되더라도 그는 나에게 있어서 마음속 생각을 터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벗이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喙長三尺 ()
- 주110. 吹毛覓疵 ()
- 주111. 得隴望蜀 ()
- 주112. 寬弘磊落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盜之就拿 厥足自麻 ()
- 주114. 蔬之將善 兩葉可辨 ()
- 주115. 十人之守 難敵一寇 ()
- 주116. 晝言雀聽 夜言鼠聆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亦出已也於焉則可特直之彼下

주117. 鳥○將死 其鳴○哀 《論語》

(,)

주118. 貧賤之交 不○忘 糟糠之妻 不○堂

《十八史略》

(,)

주119. 後生可畏 ○知來者之不如今也 四

十五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

《論語》

(,)

주120. ○不百步耳 是○走也 《孟子》

(,)

※ 문장의 ○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職命招傳厭存守謙權思默恭死

주121. 子曰 ○而識之 學而不○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論語》

(,)

주122. 滿○損 ○受益 《書經》

(,)

주123. 陷之○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

《史記》

(,)

주124. 有官○者 不得其○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爭臣論》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 안의 漢字

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項懸爲耶我誰猫鈴能]

《古今笑叢》

국역: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

주126. [所亦爲人人者憎憎好] 《說苑》

국역: 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

주127. 嗟呼 [之也矣傳師不道久]

《師說》

국역: 아! 슬프다. 스승의 도가 전해지지 못한 지 오래

되었다.

()

주128. [天作人於於仰不不俯愧] 二

樂也 《孟子》

국역: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 즐거움이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令]

《孟子》

()

주130. [夫子之任 見季子 之齊 不見儲子]

《孟子》

()

주131.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孟子》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絕句> - 杜甫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然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나) <飲酒> - 陶淵明

㉡결려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間有眞意 欲辨已忘言

(다) <㉣> - 李齊賢

㉣憶君無日不霑衣 政似春山蜀子規

爲是爲非人莫問 只應㉤잔월효성知

주132. ㉠을 국역하시오.

()

주133.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4. ㉢을 국역하시오.

()

주135. (나)의 주제를 쓰시오.

()

주136. (다)는 李齊賢이 漢譯한 高麗歌謠이

다. ㉣에 들어갈 이 시의 제목을 漢字(正字)

로 쓰시오. ()

주137. ㉤을 국역하시오.

()

주138.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凡讀書者 必端拱[㉠]위좌하여 敬對方冊하여 專心致志하고 精思涵泳하여 深解義趣하고 而每句에 必求踐履之方이니 若口讀而心不體身不行이면 則書自書我自我니 何益之有리오 先讀小學하여 於事親敬兄忠君[㉡]제장용사親友之道에 一一詳玩而力行之할지니라 次讀大學及或問하여 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道에 一一眞知而實踐之할지니라 次讀論語하여 於求仁爲己涵養本源之功에 一一靜思而深體之할지니라 次讀孟子하여 於明辨義利遏人慾存天理之說에 一一明察而擴充之할지니라 次讀中庸하여 於性情之德과 推致之功과 位育之妙에 一一玩索而有得焉할지니라 次讀詩經하여 於性情之邪正과 善惡之褒戒에 一一潛繹하여 感發而懲創之할지니라 次讀禮經하여 於天理之節文과 儀則之度數에 一一講究而有立焉할지니라 次讀書經하여 於二帝三王之 治天下之大經大法에 一一領要而溯本焉할지니라 次讀易經하여 於吉凶存亡[㉢]진퇴소장之機에 一一觀玩而窮研焉할지니라 次讀(㉣)하여 於聖人之 賞善罰惡[㉤]抑揚操縱之微辭奧義에 一一精研而契悟焉할지니라 <중략> 凡讀書에 必熟讀一冊하여 盡曉義趣貫通하여 無疑然後에 乃改讀他書요 不可貪多務得하여 ㉦망박섭렵也니라

《擊蒙要訣》

- 주139.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1.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2. 문맥상 ㉣에 들어갈 書名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3. ㉤을 국역하시오. ()
- 주144.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生亦悽惋不已曰 寧與娘子와 同入九泉이언정 豈可無聊獨保殘生이리오 向者 傷亂之後에 親戚僮僕이 各相亂離하고 亡親骸 ㉠狼籍原野라니 ㉡儻非娘子면 誰能 奠埋리오 古人云 生事之以禮하고 死葬之以禮라하니 盡在娘子라 天性之純孝요 人情之篤厚也라 感激無已하고 自愧可勝이라 願娘子는 淹留人世하여 百年之後에 同作塵土라 女曰 李郎之壽는 剩有餘紀하고 妾已載鬼籙하니 不能久視라 若固眷戀人間하여 ㉢위법條令이면 非唯罪我요 兼亦累及於君이라 但妾之遺骸가 散於某處하니 ㉣倘若垂恩이라면 勿暴風日호라 相視泣下數行하고 云 李郎珍重하소서 하니라 言訖漸滅하고 了無踪迹이라 生拾骨하고 附葬于親墓傍이라 既葬에 生亦以追念之故로 得病數月而卒이라 聞者莫不傷歎하고 而慕其義焉이라

《㉤금오신화》

- 주145. 윗글의 제목인 ‘이생규장전’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6. 문맥상 ㉠의 ‘독음’을 쓰시오. ()
- 주147. ㉡을 국역하시오. ()
- 주148.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주149. 문맥상 ㉣의 ‘훈과 음’을 쓰시오. ()
- 주150. ㉤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3. 3. 16. (목)

결과조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11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②	11	④	16	①	21	②	26	④	31	①	36	①	41	①	46	④
2	①	7	③	12	①	17	③	22	①	27	④	32	③	37	①	42	②	47	②
3	③	8	①	13	③	18	④	23	③	28	②	33	②	38	④	43	②	48	①
4	②	9	④	14	①	19	③	24	②	29	③	34	③	39	②	44	③	49	③
5	③	10	②	15	④	20	③	25	④	30	①	35	④	40	③	45	④	50	②

■ 주관식 I ■

주1	건질 증	주21	끓을 초	주41	준순	주61	染→焰	주81	青藜杖
주2	서직무성할 옥	주22	소곤거릴 침	주42	모자	주62	逮→諦	주82	和氣靄靄
주3	비상 비	주23	木	주43	박담	주63	複→輻	주83	捏造
주4	눈떨떨내릴 비	주24	土	주44	전요	주64	煙→煉	주84	蔓延/衍
주5	손백칠 변	주25	金	주45	사력	주65	斂→廉	주85	清麴醬
주6	어리석을 은	주26	冂	주46	저포	주66	不銹鋼	주86	拇印
주7	빛을 온	주27	睛	주47	함수	주67	攀緣	주87	悖倫
주8	문지방 곤	주28	熬	주48	삼루	주68	澱粉	주88	蛋白質
주9	감출 도	주29	戢	주49	눈아	주69	鐵槌	주89	縵袍
주10	어두울/검을 암	주30	愬	주50	삼랄	주70	蝟縮	주90	鹵獲
주11	시령 봉	주31	漚	주51	삼황	주71	獐惡無道	주91	瓠
주12	노구솔 과	주32	觜	주52	침지	주72	籌備	주92	曝
주13	으르렁거릴 은	주33	縊	주53	여역	주73	謹愨	주93	眇
주14	돌 수	주34	襖	주54	요나	주74	糠糜	주94	餐
주15	햇빛 분	주35	竄	주55	흘승골성	주75	愆滯	주95	霽
주16	복자 선	주36	剡	주56	확락	주76	高水敷地	주96	悸
주17	건널 향	주37	饌	주57	祕藏	주77	狹窄	주97	巒
주18	방울 란	주38	繭	주58	悲壯	주78	幫/幫助	주98	醯
주19	고요할 밀	주39	猊	주59	無辜	주79	邀擊	주99	瓢
주20	웅크릴 준	주40	頽	주60	巫蠱	주80	濾過紙	주100	拈

제111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	주118	可, 下	주135	전원생활의 즐거움
주102	X	주119	焉, 已	주136	鄭瓜亭
주103	X	주120	直, 亦	주137	님 그리워 옷 적시지 않는 날이 없으니
주104	X	주121	默, 厭	주138	殘月曉星
주105	白駒過隙	주122	招, 謙	주139	危坐
주106	輾轉反側	주123	死, 存	주140	弟長隆師
주107	被髮徒跣	주124	守, 職	주141	進退消長
주108	刎頸之交	주125	猫項 誰能爲我懸鈴耶	주142	春秋
주109	허물이 드러나서 숨겨 감출 수가 없음 / 말을 거침없이 잘함	주126	好憎人者 亦爲人所憎	주143	억누르고 들춰내고 잡고 놓은 미묘한 말과 오묘한 내용
주110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	주127	師道之不傳也 久矣	주144	忙迫涉獵
주111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	주128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주145	李生窺牆傳
주112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아니함.	주129	덕의 퍼짐은 역참에 파발마를 두고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주146	낭자원야
주113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주130	부자께서 임나라에 가셔서는 제자를 만나보시고 제나라에 가셔서는 제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다.	주147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 물어드릴 수 있었겠소
주114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주131	어찌 어진 이가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주148	違犯
주115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놈을 못 막는다.	주132	강물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주149	혹시 당
주116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주133	結廬	주150	金鰲新話
주117	之, 也	주134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며		